

## “포기하지 마세요... 내디녀야 보입니다”

당신의 삶이  
이야기입니다

(7) 수어 배우는 이경애 씨

불행은 느닷없이 찾아왔다. 스무 살이던 해, 잠에서 깨자마자 삶이 뒤틀렸다. 들어본 적도 없는 병, '안면 마비'였다. "자기 전까진 멀쩡했는데 일어나 보니 마비가 와 있었어요. 정말 심했을 땐 친구가 앞에 있어도 '야' 하고 발음하지 못할 정도였죠. 한창 예쁜 나이에 그 일을 겪게 되니 공부를 할 생각도 못했죠." 이경애(55) 씨가 말했다.

온전히 아픈 데만 집중하던 시간이었다. 그래도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는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

스무 살에 '안면 마비'... 뒤늦게 공부하며 마음 치유  
수어 등 배우며 봉사... "농인과 소통 가능 사회되길"

“한 발짝” 있었기에 모진 아픔서 걸어 나올 수 있어”

고, 1남 1녀를 낳았다. 누구보다 밝게 키우려 애썼다.

▶공부하며 마음 치유... 세상에 한 발짝=2014년 마흔 중반 나이에 대학에 가기로 마음먹었다. 아이들의 응원을 받았지만 적응은 쉽지 않았다. 학교에 가서도 누가 쳐다보는 게 싫어 뒷자리를 고집했다. 그는 "얼굴 때문에 많이 위축돼 있었다"고 했다.

변화의 계기가 된 것은 '상담'이었다. 청소년교육을 전공하며 개인·집단 상담에 대해 배우다 직접

전문 기관을 찾았다. "상담을 알려면 상담을 받아 봐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혼자 끙끙 앓는 게 아니라 제 상황을 이야기하고 도움을 구하기로 했죠. 그게 제가 세상에 한 발 내딛는 징검다리인 것 같아요."

그 역시 도움이 필요한 곳을 살피게 됐다. 2018년 대학을 졸업하고 저소득층 아이들의 멘토링 자원봉사를 시작했다. 이듬해부터 '수어'를 배우 이유도 비슷하다. 그는 "멘토링을 하며 도움이 필요한 곳이 많다는 것을 느꼈는데, 또 어떤 걸 배우면 좋을까 하던 참에 수어 교육을 알게 됐다"며 "마침 교육 장소도 집과 가까워 일단 배워보자고 덤석 신청했다"고 말했다.

한 번도 접한 적 없던 수어를 배우는 건 생각보다 더 힘들었다. 단어 위주로 배우는 기초반을 넘어서니 수업 시간에 등에 식은땀이 흐

를 정도였다. 못 알아들겠어도 자리를 지켰다. "국어에도 표준어와 사투리가 있는 것처럼 수어도 마찬가지로 있었어요. 게다가 농인들이 사용하는 '농식'이 따로 있어 '없다'라는 말도 그릇이 비어 없을 때, 사람이 없을 때, 돈이 없을 때처럼 상황에 따라 표현이 달라지더라고요. 지금도 많이 서툴지만 계속 하다보니 조금씩 수어를 이해할 수 있게 됐지요."

▶제2의 국어 '수어'... "알아야 농인이 보여요"=수어를 배운 지 4년이 넘었지만 그는 여전히 공부하고



이경애 씨는 수어를 알아야 농인들이 보이기 시작한다고 했다. 사진은 그가 간단한 수어를 하고 있는 모습.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①만나서 ②반갑습니다 ③감사합니다. 김지은기자

있다. 요즘도 농아인협회, 농아복지관에서 일주일에 세 번 교육을 받는다. '수어'로 시작했지만 촉각화(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촉각을 활용한 수어), 점자 등으로 분야를 넓히고 있다. 그는 "공부하지 않았더라면 몰랐을 테지만 시작하고 나니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더라"며 웃었다.

그는 배우는 데에서 멈추지 않았다. 수어를 배우며 '손소리봉사단' 활동을 하고, 이달부터 농인의 근로지원인으로 일하고 있다. 그의 바람처럼 수어를 배워 도움이 필요한 곳에 손을 내밀고 있는 것이다. "전에는 수어로 대화하는 사람을 봐도 나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했어

요. 그런데 수어를 알게 되니 농인들이 보이기 시작했지요. 안 들리고 말을 못할 뿐이지 우리와 뭐든 같이 할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됐고요." 그가 수어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지금의 그를 있게 한 것도 사회를 향한 '한 발짝'이었다. 그 걸음이 모여 20대 시절 겪었던 아픔에서도 걸어 나올 수 있었다. 그랬던 만큼 지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청년들에게도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자부 나아가세요. 사회에 발을 내디녀야만 보이고 알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뭐든 해 보려는 도전 정신도 생기게 되고요. 쉽게 포기하지 마세요."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 송성한·강동선·양윤삼 부이사관 승진 도교육청, 5급 이상 지방공무원 48명 인사

제주도교육청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안전복지국장에 송성한 제주교육박물관장이 승진 발령됐다. 행정국장에는 강동선 제주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직급이 상향된 제주도서관장은 양윤삼 교육재정과장이 각각 승진했다. 도교육청은 22일 이런 내용으로 3월 1일 자 5급 이상 지방공무원 인사를 발표했다.

▶인사명단 13명  
이번 인사는 김광수 교육감 취임 이후 실시된 3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것으로 국장급인 3급 지방 부이사관이 현행 1명에서 3명으로 늘어나는 등 변화 폭이 컸다. 인사 규모는 명예퇴직 1명, 승진 11명, 전보 36명 등 총 48명이다.

3급 승진자는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행정국장 강동선, 제주도서관장

양윤삼 지방부이사관이다. 강에 선 행정국장은 2월 28일자로 명예 퇴직한다.

4급 인사는 교육시설과장에 문영애, 총무과장에 김형조, 교육재정과장에 김희정 사무관이 각각 지방서기관으로 승진했다. 김명기 서기관은 교육예산과장, 문성인 서기관은 교육행정과장, 변숙희 서기관은 탐라교육원 총무부장, 김광수 서기관은 제주교육박물관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5급에서는 강명철(교육재정과), 정재훈(교육재정과), 고은호(표선교), 박선영(한라초), 문민실(세화고) 등 5명이 지방교육행정 사무관으로 승진했다.

도교육청은 앞서 지난 17일 예고한 6급 이하 지방공무원 인사도 이날 확정했다.

진선희기자

### 3·1절 기념식 항일기념관 야외서 연다 제주도, 코로나19 일상회복 따라 정상 개최

제주특별자치도가 제104주년 3·1절 기념식을 제주항일기념관 추념탑 광장에서 개최한다.

3·1절 기념식은 코로나19로 지난 3년간 취소 또는 축소 개최됐으나 올해는 코로나19 일상회복과 실내 마스크 의무해제 상황을 감안하고 국경일 행사 정상화로 항일운동의 뜻을 기리고 도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기념행사로 추진하기 위해 정상 개최를 결정했다.

특히 매년 행사를 개최해온 조천체육관에서 제주항일기념관 추념탑 광장 야외무대로 장소를 옮겨 기념식을 진행한다.

이날 행사는 기념식에 앞서 조천청년회의소 주관으로 오전 8시50분부터 10시20분까지 독립유공자 유가족 및 학생, 지역주민 등 1000여 명이 참여해 제주 4대 항일운동을 재현하는 대대적인 만세대행진(신촌·함덕초→조천만세동산)과 조천만세운동 재현공연(항일기념관 광장 무대)이 진행된다.

만세대행진이 끝나고 오전 10시30분부터 제104주년 3·1절 기념식이 도내 각 기관·단체장, 광복회원, 도민 등 10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항일기념관 추념탑 광장에서 개최된다.

고대모기자

자립준비청년 정착금 1500만원... 3명 / 조합장선거 후보자 프로필... 8·9면




## 미래산업을 선도하는 산학협력 오픈 콜라보레이션 대학

개교 30주년, 새로운 시대·새로운 인재 양성

30th Anniversary JEJU TOURISM UNIVERSITY

